

광주학생들, 캐나다서 5·18 기념행사

광주교육청 ‘책으로 세계로’ 운영
23일까지 美·캐나다 탐방 국제교류
18일, 사진전·플래시몹 공연 등

광주 학생들이 5·18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 캐나다에서 ‘5·18 기념행사’를 연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마련한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광주 학생들이 국제교류 활동에 나선다.
‘책으로 세계로’는 광주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빛고를 독서 마라톤 활동 우수자 등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추천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세계 문학의 거장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엘리엇의 문학적 유산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탐방할 예정이다. 오는 23일까지 10박12일 동안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창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현지인들과 우리 예술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애틀란타한국문화원 최응운 영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로 출발하기에 앞서 광주 학생들이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사 접견·한국교육원장 강연, 조지아텍, 예모스대, 토론토대 등 현지 명문 대학 방문과 현지 학생 교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포럼 운영 ‘소년이 온다’를 통한 학생 주도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강연, K-컬처 공연과 K-문학 강연, 헤밍웨이 박물관 방문, 토론토 공공도서관 ‘엘리스 먼로 문학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18일)에는 한인학생회(UTKSA)와 함께 토론토 네이션스필립스광장에서 ‘5·18 기념 행사’를 연다. 학생들은 ‘위대한 유산 : 5·18 그날의 기록과 진실’ 사진전을 선보이고, 토론토의 ‘타임 스퀘어’로 지정되는 던다스 광장에서 5·18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영문판 문고 ‘10일간의 항쟁’ 책자를 현지에서 배부하며 5월 광주 정신의 세계화와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으로 세계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세계 속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리고,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찾아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경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지원

한전KPS·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 협력 방안 논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5월을 ‘산업체 방문 현장 소통 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기업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나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인 한전KPS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했다. 광주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업 방문은 지난해 광주 직업계고 졸업생을 채용한 한전KPS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업과 지역 기업 7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 취업지원관 2명은 1조를 이뤄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직무 수행 만족도를 확인하고 기업과의 향후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한전KPS는 직업계고 대상 현장 체험 프로그램인 ‘한전KPS패러데이 스쿨’을 운영하면서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안 분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채용 설명회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인턴십과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

램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기업 방문을 통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홍보할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졸 인력 미스매칭 해소 등에 대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고졸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현장 소통의 결과,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산업체와의 주기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믿음직한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AI·디지털 30+집중캠프’ 운영

교육부 선정...성인 재직자 대상 평생학습형 지원 프로그램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직자 AI·디지털(AID) 30+ 집중캠프’의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성인 재직자들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분야의 실무 역량을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형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조선대 평생교육원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직무수요를 반영해 일반사무, 영업, 마케팅 직군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240명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8회 이상 진행되며, 주중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수강생들이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전원에게는 조선대학교 총장 명의의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가 발급되며, 이는 향후 학습 이력을 축적하는 ‘마이크로크리덴셜(Micro-Credential)’ 체계로 확장돼 경력 개발, 직무 전환, 재취업 시 실질적인 역량 인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박재연 조선대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반 평생교육 제도를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배지, LMS 기반 학습관리,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함께 AI 시대를 여는 선도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갤러리 이음’ 온라인으로 감상

청사 1층 전시 공간 ‘디지털 갤러리’ 개설...20여회 전시 예정

전남교육청이 전남 교육 가족의 예술감수성을 채워주는 ‘갤러리 이음’을 온라인 공간과 함께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갤러리 이음’은 청사 1층에 마련된 전시 공간으로, 전문 미술작가 기획전과 교육 전시를 통해 전남 교육가족과 민원인에게 예술로 힐링하는 교유의 장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온라인 전시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교육청 누리집 내에 ‘디지털 갤러리 이음’을 개설해 전시 관람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서양화, 한국화, 서예,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20여회 전시가 예정돼 있어 전남의 교육·문화 생태계 안에서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갤러리 이음’은 누리집 ‘기관 소개’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작품은 전시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갤러리 이음’을 통



전남도교육청 ‘갤러리 이음’에 전시된 작품.
해 예술과 교육, 지역과 학교가 함께 호흡하는 상징적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한편 전시 관련 소식과 작가와의 대화, 원데이 클래스 등 온라인 참여 콘텐츠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특화역량 육성 기관 선정

광주 유일...스타트업 경쟁력 확보·일자리 창출 기여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창업보육(BI)센터가 올해도 다양한 창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Start-Up) 경쟁력 확보, 예비 CEO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
12일 동강대에 따르면 동강대 BI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시행하는 ‘2025년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의 지역 거점형 분야에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강대는 광주대·동신대·순천대 등 3개 대학과 함께 BI센터 입주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동강대는 지역 내 BI센터 입

주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대상을 확대, 지원해 광주전남지역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투자유치와 마케팅 분야 특화 운영으로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전문가 멘토링도 진행한다.
동강대 BI센터 박경우 센터장은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특화사업 외에도 여러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며 “올해도 여러 분야의 창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알찬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디케이 주식회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